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

엄 태 완
(경남대학교)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새터민 여성, 우울,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통합

이 연구결과물은 2011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투고일: 2012.7.26 ■ 수정일: 2012.9.10 ■ 게재확정일: 2012.9.21

I.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새터민¹⁾의 수는 매년 2천 명에서 3천 명에 이르며,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70% 이상이다(통일부, 2012).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으로 중국 국경을 넘는 여성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실태 조사에서 보면 1998년 말과 1999년 초 당시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75.5%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상당비율(51.9%)은 중국남성과 동거 형태로 생활하거나, 불법체류자로서의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박영호 외, 2010)고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탈북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로 인해 남한 입국자들도 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하는 여성들은 어떠한 형태로 중국에 체류하든지 간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복송된다면 상황에 따라 고문, 감금, 그리고 가족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극단적 어려움을 경험한 새터민 여성들은 남한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새터민 여성들은 북한과 중국에서 기아, 폭행, 질병 등의 위기적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남한의 지역사회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엄태완, 2010). 새터민 여성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김미령, 2005; 김희경·신현균, 2010; 조영아·김연희, 2010), 유사한 탈출과정을 경험하는 국외 이주민과 난민의 우울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어 있다(Baider et al., 1996; Chung, 2001; Chung & Bemak, 2002; Rumbaut, 1990).

선행연구들에서는 새터민 여성들의 우울에 대한 성차, 영향요인, 적응과의 상관 등을 다루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우울이 남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조영아·김연희, 2010)을 경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은 생리·심리·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에서도 장기간의 다차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수의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또는 심리적

1)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주민 등으로 일치되지 않게 불려지고 있다.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새터민으로 남한이주 북한주민을 명명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북한에서 이주한 여성의 경우 '새터민 여성'으로 명명하였다.

영향요인을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부분은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남한 주민과의 상호적 관계를 검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즉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대해 심리적 관계를 중요시한 만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인을 탐구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다.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의 변인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입 전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남한주민들과 상호교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인들과 우울의 관계를 탐색해야 한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관련하여 개인과 사회의 호혜성과 교류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개념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으며, 난민 여성의 경우에 낮은 사회적 자본은 우울과 연관된다(Julia et al., 2012)는 보고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결속력은 우울과 관계가 있다(O'Brien et al., 1994)는 연구에서 보듯이 새터민 여성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관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 여성의 지역사회 생활과 심리적 문제는 밀접한 관계(엄태완, 2010; 정병호 외, 2006)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갈등이 감소되며(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핵심요인(장용석 외, 2000)이라고 하였다.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새터민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전문직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관여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실천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새터민 여성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우울이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대해 개인의 내면적 차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한주민 또는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통합, 우울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고찰

1. 새터민 여성의 우울

남한의 새터민 중 여성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80%에 가까운 비율로 남한에 정착하고 있다. 남한에 이주하는 새터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남성은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직업에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들은 배급을 받아서 생활을 했지만 그 배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면서 가족의 생계를 여성들이 책임져야 했다. 여성들은 소위 장마당(북한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국경지대(함경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중국으로 밀입국하여 친척에게 원조를 구하거나 장사를 시도한다(박영호 외, 2010).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중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접하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새터민 여성들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를 비롯한 복송의 불안, 생존의 고통, 노동 착취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새터민 여성으로 하여금 남한적응 과정에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엄태완, 2010). 새터민 여성들의 경우에 탈북과정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 함께 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남한생활의 위축감과 신분 노출의 스트레스와 우울 등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정병호 외, 2006).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우울은 청소년과 성인, 중년기 및 노년기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선·신경림, 2004; 신희석, 2002). 또한 우울은 정신장애 중에서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아서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흔하다(박경, 2003)고 하였다.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도 국내 입국 후 사회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조사결과를 보

면, 새터민 여성의 50% 이상이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피해의식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김희경·오수성, 2010). 또한 새터민 여성 중 강제 복송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이 높았다(최빛내·김희경, 2010). 새터민 여성과 새터민 남성의 우울 수준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새터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김희경·신현균, 2010)는 결과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착 초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지만 정착 후 남한생활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감에 더 취약했다(조영아 외, 2005)고 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남성들이 사회적 우대와 이익이 주어지는 북한사회에 익숙한 새터민 남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여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남성 정체감의 중요한 요소를 형성하는 경제적 능력이 손상됨을 더 많이 느끼면서 더 큰 좌절감을 느끼는 것(조영아 외, 2005)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김현아와 전명남(2003)의 연구나 한인영(2001)의 연구에서 새터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다(김미령, 2005).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남녀 차이를 비교한 난민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359명), 캄보디아(300명), 라오스(300명)의 난민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외상 사건, 이주결정, 난민캠프 생활, 저소득, 고연령 등이 우울과 관련된 스트레스원(distressor)이었으며, 성차(gender differences)는 처음에 새로운 국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이후에 문화적응 하는 기간에 출현하는 것이었다(Chung & Bemak, 2002). 또한 심리적 문제의 회복률에서 난민남성은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지만 난민여성의 심리적 상태는 장기간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된다(Rumbaut, 1990). 한편, 우울과 관련 있는 스트레스의 경우에 이민자의 남성이 여성보다 스트레스가 높고 적응이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Baider 외(1996)가 이스라엘의 러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남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내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보고와 함께 남편집단의 스트레스 주원인은 경제적 상황이었으며, 아내집단은 사회적 지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난민이나 이주민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터민 여성의 우울은 지역사회 적응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성별과 같이 새터민의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연령, 교육수준, 동거가족, 직업유무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새터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다(김희경·신현균, 2010)는 결과도 있지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들(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이경희·배성우, 2006)도 많다. 새터민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은 경우(김미령, 2005)도 있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김연희, 2006; 이경희·배성우, 2006). 또한 교육수준과 우울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조영아 외, 2005)가 있으며, 가족동거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김연희, 2006; 이경희·배성우, 2006)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김현아·전명남, 2003). 그리고 직업이 없는 새터민들의 우울이 있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이경희·배성우, 2006). 이와 같이 새터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우울이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표집과 정착기간의 문제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이 비확률표본추출의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새터민과 같은 이주민들의 정신·행동적 장애를 갖게 되는 특정한 기간이 U자형이나 W자형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Furnham & Bochner, 1989)에서 유추할 수 있다. 새터민들의 거주기간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우울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새터민들의 우울은 확률표집의 방법으로 거주기간 등을 통제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탐색되어 왔지만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적 측면의 변인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에 새터민 여성과 남한주민의 일상적 삶에서 상호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접근 시각을 가지고 접근되었으며, 이민 혹은 인구이동과 관련한 영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내재되어 있는 이론적 개념들은 Bourdieu, Coleman, Putnam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김상준, 2004; 유석춘·장미혜, 2003). 먼저 Bourdieu(1983)는 ‘사회집단이나 계급간의 제도화된 관계에 의한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체'라고 정의함으로써 구조적이고 역동적인 차원으로 규정하였다. Bourdieu(1983)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집단 간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존재 형태와 재생산의 과정을 파악하였다. Bourdieu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확장하여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관점으로 접근한 Coleman(1988)은 사회구성원 간의 의무와 기대, 사회적 신뢰와 사회 규범을 강조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에서 호혜성, 사회적 신뢰, 교류를 중요한 하위개념으로 보았다. 호혜성(reciprocity)은 선의에 근거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손해가 있더라도 우호적으로 반응하거나, 불공정한 상대방의 행위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사회적 신뢰는 개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 교류는 사회 참여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Putnam(2000)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호혜를 위한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개념상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규범과 신뢰,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근거를 통해 새터민 여성의 입장을 살펴보면, 남한주민들은 그들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진 배타적 집단이며 그들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반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관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서문기, 2011). 그러나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빈약한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체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을 형성하거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부터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난민 여성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Boateng, 2009). 일반적으로 새터민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남한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남성에게 비해 빈약하며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남성에게 비해 사회적 자본의 획득에 어려움을 가

지는 것(오혜경, 2010)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연줄에 의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중요한 만큼(유석춘·장미혜, 2003), 새터민 여성들은 이러한 연줄로 맺어진 결속력을 형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남한에 정착중인 새터민들 중 50%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서 생활하고 있다.²⁾ 새터민 여성은 일반적인 취약성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으로 인한 제약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까지 중복되어 더욱 심각한 우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의 속한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정적 정신건강은 우울이다(박상규·이병하, 2004; Mirowsky & Ross, 2001). 일반적으로 빈곤층 여성의 우울 관련 요인으로 생활스트레스, 자존감, 슬픔, 절망감, 외로움, 사회적 지지 등의 변인을 다루고 있으므로(김정엽·이재모, 2008; Heilemann, 2004)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 저소득, 여성, 사회적 배제 집단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사회적 자본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난민 여성의 경우에 낮은 사회적 자본은 우울과 연관된다(Julia et al., 2012)는 보고가 있지만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이 속한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양과 질에서 편차를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의 우울과 관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의 질은 제도적 행위 유형의 누적된 결과임과 동시에 행위에 대한 개인적 동기 및 욕동도 중요한 특성으로 작용하기(Lin, 2001)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관이 있다(서문기, 2011)는 결과를 보더라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우울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새터민 여성의 지역사회통합과 우울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 주목할 요인으로 지역사회통

2)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새터민의 고용률은 41.9%(일반주민은 70.6%),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에 50% 이상이며(일반주민은 3.2%),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이고, 취업의 형태도 식당이나 공사현장 같은 단순노무직(31.5%)과 기계 조작이나 조립(23.2%)이다(한겨레신문, 2010년 11월 20일).

합(community integration)이 있다. 지역사회통합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기능을 조작화하면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지역사회통합으로 한정하여 사용한 Segal과 Aviram(1978)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체계론적 시각에서 지역사회통합은 존재(presence), 접근(access), 참여(participation), 생산(production), 소비(consumption)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Segal & Aviram, 1978).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사회통합은 물리적 통합, 사회적 통합, 심리적 통합으로 구분되며(Wong & Solomon, 2002), 물리적 통합은 지역사회에 개인이 참여하는 정도, 서비스 활용도, 자발성 등을 말한다. 사회적 통합은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심리적 통합은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사회일원으로서 효능감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민소영, 2009). 이러한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을 새터민 여성에 적용하면, 새터민 여성들이 남한의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자원을 똑같이 이용하는 것, 남한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남한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남한주민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역사회통합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새터민 대상으로는 심리적 요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과 지역사회통합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김재숙, 2006)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을 객관적 사회통합과 주관적 사회통합의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새터민 여성의 지역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찾을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 새터민 여성들의 우울은 다양한 차원의 일상적 혹은 사회적 생활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파악되었는데(김미령, 2005; 김희경·신현균, 2010; 조영아·김연희, 2010), 사회적 자본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가정하여 우울과는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새터민 여성들이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적응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병리적 상황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 설정의 근거는 지역사회 결속력은 우울과 관계가 있다(O'Brien et al., 1994)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 여성의 심리적 문제와 지역사회 생활은 밀접한 관계(엄태완, 2010; 정병호 외, 2006)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헌들도 다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

회의 문제와 갈등이 감소되며(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핵심요인(장용석 외, 2000)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이익집단 간의 침예한 대립과 투쟁 그리고 집단이 기주의를 극복하게 하고, 국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박상필, 2000; Allen, 2001).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Putnam, 2000).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갈등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상호존중 및 신뢰,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갈등의 조정뿐만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장용석 외, 2009).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의 단결정도와 동질성을 강조하는 결속(bond) 차원과 이질적인 집단들의 유기적 연결을 나타내는 연대(bridge) 차원으로 구별되며,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 약한 연결고리(weak tied network)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서문기, 2011).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우울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다. 새터민 여성이 최소 6개월 이상의 남한생활을 지속해야 지역사회통합의 정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표본의 선정에서는 유의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경남지역의 창원, 김해, 진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여성들이었다. 조사는 창원과 진주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사회복지사 그리고 본 연구자의 직접 방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0년 05월 25일부터 09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으로부터 총 1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문항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11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가. 우울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여성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활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하여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1971년에 개발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승철 등(1991)이 번안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74이었다.

나. 사회적 자본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척도는 사회적 신뢰(개인적 신뢰, 제도적 신뢰), 호혜적 규범(호혜성), 생산적 네트워크(개인 및 집단교류, 사회참여)를 잠재변인으로 측정한 조남익(2008)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이다. 조남익(2008)의 연구대상자는 대학생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여성의 특성에 맞게 용어를 조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개인에 대한 신뢰는 현재 새터민 여성들과 쉽게 관계를 맺고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이웃’, ‘친구’, ‘공무원(경찰 등), 민간기관 직원’에 대한 신뢰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현재 새터민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판단한 ‘법률’, ‘정당(정치)’, ‘교육제도’,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호혜적 규범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볼 때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생산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기록하고 보관 중인 전화번호의 수’, ‘모임 빈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01이었다.

다. 지역사회통합

지역사회통합은 Wong과 Solomon(2002)이 체계화한 개념을 중심으로 구분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통합을 근거로 하여 측정한 최윤정(2010)의 연구에서 인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최윤정(2010)의 연구에서 물리적 통합은 Aubry와 Myner(1996)이 사용한 척도를 번역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 여성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원봉사 활동하기’ 문항을 제외하고 11문항으로 구성된 후에 새터민 여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관광서 가기, 식당 등 찾아가기, 시장이나 병원 가기 등에 대한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11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91이었다. 최윤정(2010)의 연구에서 사회적 통합은 Unger와 Wandersman(1982)의 이웃에 대한 행동 척도를 번역한 10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당신의 차가 고장 났을 경우...’ 등과 같이 새터민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른 4문항을 제외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성된 항목에는 대화하는 이웃의 숫자, 친구 숫자, 음식이나 도구를 빌릴 수 있는 이웃의 숫자 등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96이었다. 최윤정(2010)의 연구에서 심리적 통합은 Peterson 등(2008)이 개발한 간이지역사회의식척도(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를 변안하여 8문항을 사용하였으나 새터민 여성들의 상황적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는 우리 이웃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한다’ 등의 3문항을 제외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통합은 5점 척도이며, 지역사회 내 이웃과의 소속감, 욕구충족, 이웃과의 연결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89이었다.³⁾

3) 수정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모델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직각회전 방법에서 베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보수기준에 ± 0.40 이상, 고유치(eigen value) 1이상을 기준으로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 1은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물리적 통합이었고, 요인 2은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적 통합 하위요인이었으며, 요인 3은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심리적 통합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역사회통합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느 정도 확보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마.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거주기간, 제3국거주기간, 직업유무, 월평균소득, 신체적 건강정도를 포함한다. 연령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60대 까지이며, 결혼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이외에 별거, 동거 등의 경우에 기타로 구분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학력은 북한에서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20세 이상의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 남한에서 새로운 정규학습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주기간은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9-12개월 사이에 해당되었다. 제3국은 대부분 중국을 의미하여 입국 과정으로서의 동남아시아의 거주기간도 포함되었다. 제3국거주기간은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유무의 경우에는 정규직(월급을 받고 장기간 취업이 가능한 직장), 비정규직(월급을 받으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 되는 직장), 자영업(자기 사업체 운영)의 경우에는 직장이 있음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 아르바이트(시급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직장), 일용직(그 날 일하고 일당을 받는 직장),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 일없이 지내는 경우를 직장이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정부 지원금, 생계비, 월급, 각종 후원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건강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한 운동기간 등을 건강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이현기, 2010)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건강 판단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응답 범주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1점), “보통이다”(2점), “건강한 편이다”(3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된 직업유무, 월평균소득, 신체적 건강상태 변인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주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Windows, versio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설문 문항으로부터 잠재된 개념요인의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이용하

였다. 또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여성의 연령은 30~40대가 75%이며 이는 현재 남한의 새터민 여성들의 분포와 유사하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새터민 여성은 32%로 나타났으며, 이는 30대 이하의 새터민 여성 16.7%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새터민 여성들이 미혼, 이혼 또는 기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 새터민 여성들의 학력은 고등과정 졸업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70%이었다. 이는 새터민 여성들이 기본적인 학습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남한 거주기간에서 3년 이상인 새터민 여성들은 20% 정도이며, 조사대상 새터민 여성의 80%는 3년 미만이었다. 조사대상 새터민 여성들은 주로 중국에서 장단기간 거주하다가 남한으로 이주하였는데, 새터민 여성 중 절반 이상(55%)이 5년 이상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조사대상 새터민 여성 중 30%는 10년 이상의 제3국 거주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거주경험이 남한사회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 새터민 여성 중 46%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의 범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포함하여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이다. 조사대상 새터민 여성 중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없었으며, 100만원 미만의 새터민 여성들이 58%이었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나쁘다는 조사대상자들이 40% 이었으며, 주관적으로 좋다고 지각한 응답자는 25% 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주목할 점은 새터민 여성들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새터민들은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

표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4)

변인		N	%	합계
연령	30세 미만	19	16.7	114 (100%)
	30세 이상~40세 미만	54	47.4	
	40세 이상~50세 미만	32	28.1	
	50세 이상	9	7.9	
결혼상태	미혼	41	36.0	114 (100%)
	기혼	37	32.5	
	이혼	13	11.4	
	기타	23	20.2	
학력	중등과정 졸업(이하)	34	29.8	114 (100%)
	고등과정 졸업	65	57.0	
	전문대학 졸업(이상)	15	13.2	
남한거주기간	1년 미만	26	22.8	114 (100%)
	1~3년 미만	63	55.3	
	3년 이상	22	19.3	
	무응답	3	2.6	
제3국거주기간	1년 미만	24	21.1	114 (100%)
	1~5년 미만	27	23.7	
	5~10년 미만	28	24.6	
	10년 이상	35	30.7	
직업 유무	직업 유	53	46.5	114 (100%)
	직업 무	29	48.2	
	무응답	6	5.3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30	26.3	114 (100%)
	50~100만원 미만	37	32.5	
	100~200만원 미만	43	37.7	
	무응답	4	3.5	
신체적 건강상태	나쁨	45	39.5	114 (100%)
	보통	41	36.0	
	좋음	28	24.6	

의 58%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절대적 소득이 부족한 수준이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관계는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다.4) 빈곤한 사람들과 정신건강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은 아직까지 없다.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어떤 변인을 원인으로 보느냐는 사회 환경, 개인의 특성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는 남한 도착부터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사회적 도태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개인적인 우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 삶 속에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의 우울 문제에 대해 개인의 특성과 함께 사회적 원인으로 보는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새터민 여성의 연령, 결혼상태, 학력, 남한 거주기간, 중국 등의 제3국 거주기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새터민 여성의 직업유무, 월평균 소득, 신체적 건강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새터민 여성의 우울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낮게 지각되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이 미만보다 우울을 낮게 보고 하였다. 또한 새터민 여성의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2가지 흐름에서 연구되고 있다(BellSouth, 2002). 첫째는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으로 빈곤한 상태의 지속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유발된다는 입장이다. 즉 빈곤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문제 등이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도태론(Social Selection)으로 부정적 정신건강이 원인이 되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동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즉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으로 도태되어 집중된다는 것이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분석

변인	항목	M(SD)	t/F
연령	30세 미만	18.72(7.08)	.815
	30세 이상~40세 미만	19.78(8.35)	
	40세 이상~50세 미만	22.00(5.87)	
	50세 이상	20.42(6.05)	
결혼상태	미혼	19.31(6.50)	2.091
	기혼	19.31(7.08)	
	이혼	25.40(4.69)	
	기타	20.53(9.42)	
학력	중등과정 졸업(이하)	21.04(8.66)	.335
	고등과정 졸업	20.26(6.33)	
	전문대학 졸업(이상)	18.81(9.28)	
남한거주기간	1년 미만	21.15(8.97)	1.824
	1년 이상~3년 미만	21.14(6.14)	
	3년 이상	17.41(7.84)	
제3국거주기간	1년 미만	16.90(7.26)	2.034
	1년 이상~5년 미만	20.54(5.96)	
	5년 이상~10년 미만	21.60(6.91)	
	10년 이상	21.66(8.98)	
직업유무	직업 유	18.13(6.45)	-3.052**
	직업 무	22.78(7.55)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21.87(7.83)b	6.278**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3.00(6.40)b	
	100만원 이상	17.27(6.28)a	
신체적 건강상태	나쁨	22.53(6.52)b	9.211***
	보통	21.78(7.17)b	
	좋음	15.44(6.16)a	

p<.01, *p<.001

3. 분석변인의 상관관계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우울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직업유무, 월평균 소득, 신체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통합 그리고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울은 직업유무와 상관이 있으며($r=31$,

$p < .01$), 월평균 소득($r = -.28, p < .01$), 신체적 건강($r = -.37, p < .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울과 사회적 자본은 부적 상관($r = -.25, p < .05$)을 보였지만 우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직업유무는 월평균 소득($r = -.61, p < .01$), 신체적 건강($r = -.42, p < .01$)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통합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월평균 소득은 신체적 건강($r = .40, p < .01$)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신체적 건강은 사회적 자본과 유의한 상관($r = .20, p < .05$)을 보였지만 지역사회통합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정적 상관($r = .52, p < .01$)을 보였다. 새터민 여성의 우울은 직업유무와 소득, 신체적 건강 및 사회적 자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체적 건강과 우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우울	1					
② 직업유무	.31**	1				
③ 월평균소득	-.28**	-.61**	1			
④ 신체적 건강	-.37**	-.42**	.40**	1		
⑤ 사회적 자본	-.25*	.12	-.01	.20*	1	
⑥ 지역사회통합	-.09	.04	.01	.09	.52**	1

* $p < .05$, ** $p < .01$

4.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수들의 단계별 투입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위해 회귀분석시 분산팽창지수(VIF-variance inflation index)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1.2에서 1.7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상태가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신체적 건강($p<.01$)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나서,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적 건강과 우울의 관련성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며(남연희·남지란, 2011), 새터민 여성의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기아, 중국에서의 성폭력 등의 경험, 이주과정의 신체적 질병 등의 문제와 정신건강이 상관을 가질 수 있다(엄태완, 2010). 따라서 새터민 여성의 신체적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료는 심리사회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정착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정책적, 실천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새터민 여성의 우울은 심리내적 요인을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표 4. 우울에 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t	B	t	B	t
(상수)	26.26	4.83	35.29	5.10	33.97	4.40
직업유무	1.11	.55	1.54	.76	1.55	.75
월평균소득	-1.21	-.99	-1.65	-1.33	-1.61	-1.27
신체적 건강	-2.50	-2.27*	-1.35	-1.16	-1.30	-1.10
사회적 자본			-.25	-2.00*	-.23	-1.66
지역사회통합					.01	.04
R ²	.168		.201		.185	
F	5.26**		4.39**		3.90**	

* $p<.05$, ** $p<.01$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직업유무와 월평균 소득은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의 회귀모형 적합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이 모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6.8%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p < .05$)이 많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델 II의 회귀모형 적합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이 모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다. 모델 III은 지역사회통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지만 상관관계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회귀모형 적합도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지만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오히려 낮아졌다. 새터민 여성의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새터민 여성의 우울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울에 대한 일반적 접근은 개인의 병리적 차원을 강조하는 측면이 많았다.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에서 알려진 취약성요인은 스트레스의 지속, 과거 우울증 병력, 가족병력, 우울증적인 자기도식, 역기능적인 태도 및 귀속양식, 성격유형, 자이존증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등이라고 가정하고 있다(김영미·김중술, 1992; 이미정·안창일, 1993; Robinson, et al., 1995). 새터민 여성의 경우

에도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신건강의 중요한 문제로 우울을 간주하였으며, 실제적으로도 객관적 측정도구들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우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관계, 우울의 수준 그리고 성차 등을 다루고 있기(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김희경·오수성, 2010; 이경희·배성우, 2006) 때문에 역동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새터민 여성을 보는 관점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관계(mutuality)가 중요한 하위 개념이다. 상호관계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원조가 우월성, 권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원조가 내일의 도움으로 연결된다는 믿음에 기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의 남한사회 및 주민들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우울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관여하는 전문가가 강점관점이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구자들로 하여금 우울의 영향요인을 개인의 병리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이고 강점 차원에서도 밝혀내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새터민 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중에서 사회적 차원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새터민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탈북 후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결혼, 출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한 입국 이후 또 다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중, 삼중의 자녀 부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박정란, 2009). 이는 새터민 여성들이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들에 남성보다 훨씬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을 찾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터민 여성들이 남한의 지역사회에 편입하게 되면 정착금, 노동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장려금, 취업보호제에 의거한 고용 지원금 제도,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제공하는 교육 기회와 비용, 그리고 지역통합 지원을 위한 정착도우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하나센터 등의 원조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적 문제에 관한 사회적 요인으로 주목한 변인은 대부분 사회적 지지(박윤숙·윤인진, 2007; 임지영 외, 2010)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의 존재와 속성,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차원으로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사회적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다. 사회적 자본은 매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며, 개인 또는 사회 구조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공간에 존재

한다(Bullen & Onyx, 1998)라고 보기 때문에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 있는 새터민 여성에게 의미 있는 요인이다.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확인의 또 다른 중요성은 사회적 자본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 또는 계급 간의 관계를 강조(Bourdieu, 1983)에서 찾을 수 있다. 난민 여성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에서 결속력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연결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Boateng, 2009). 실제로 새터민들은 남한의 주류사회가 그들을 ‘이등 국민’, ‘남한의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취급’, ‘조선족 다음의 노동자’, ‘북한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사람’ 등으로 자리 매김한다고 분개한다. 또한 새터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등과 같은 다른 소수자 집단과 같은 정체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윤인진, 2003). 이는 새터민 여성들로 하여금 남한 사회 및 주민들과의 관계와 연결의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관계를 보다 빈번하게 맺기 때문에(Putnam, 2000) 비공식적 지역사회 참여와 관여의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새터민 여성의 중요한 정신건강과 적응의 문제인 우울의 영향요인으로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신뢰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Coleman, 1988;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은 새터민 여성의 남한사회 참여와 관계의 양과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낮은 사회적 자본은 우울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횡단적 접근으로서 나타나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종단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인지·행동·정서를 왜곡하고 위축시키는 우울과 관계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구조의 한 측면으로 개인들 간의 관련성 속에 존재하며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Putnam, 1993)는 속성에서 살펴볼 때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주로 개인의 병리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결책으로도 개인의 인지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김현정·손정락, 2007). 사회적 자본은 일정한 구조 속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촉진하고 결속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

서 새터민 여성의 우울도 개인의 심리내적인 차원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남한사회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통합과도 유의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새터민 여성들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남북주민들 간의 대립과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존중과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하위요인이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새터민 여성의 지역사회통합에 고려해야 한다. 새터민 여성들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 간의 호혜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박선희와 박병현의 연구(2011)에 의하면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신뢰가 증가하고 지역사회에 무질서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신뢰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호혜성과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이웃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새터민 여성들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관계와 참여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의 폭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면서 지역사회통합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지리적, 사회적 공간에서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대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우울은 단일요인이 아니라 생물·심리·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울은 자체만으로 심리사회적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만, 자살생각이나 자살행동으로도 이어지거나(Lebret et al., 2006) 일상적 삶의 참여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남한으로 이주한 새터민 여성의 우울은 중요한 연구 또는 실천의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관련 있는 모든 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지역사회 삶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다. 새터민 여성들은 지역사회 편입 후 수년 간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호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원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는 상호 간 라포를 형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새터민 여성들이 남한 자원들

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여하는 전문직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이해와 함께 상호관계 혹은 상호참여의 관점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 여성의 우울과 남한 여성의 우울은 심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유사성이 있겠지만 사회적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는 다름도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터민 여성들과 남한주민들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과 같은 변인과 우울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터민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효과적인 접근이 상호성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으로 횡단점 접근을 하였다는 점과 새터민 여성의 우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 중요한 변인인 가족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서 제한점이 있다. 새터민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은 남한주민들과 똑같이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의미다. 이러한 일상적 삶의 요인은 우울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새터민 여성의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우울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엄태완은 부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사회복지, 이주난민의 정신건강, 남북주민 통합이며, 현재 동아시아 인권 관점에서의 탈북이주민, 미주 탈북난민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tweom@kyungnam.ac.kr)

참고문헌

- 김미령(2005). 북한이탈 주민들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 남성과 여성의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pp.95-124.
- 김상준(2004). 부르디외, 콜만, 페트남의 사회적 자본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pp.63-95.
- 김연희(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 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4), pp.149-180.
- 김영미, 김중술(1992). 우울증환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정신의학, 17, pp.130-138.
- 김재숙(2006). 북한이주민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경성대학교, 부산.
- 김정선, 신경림(2004).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2), pp.352-361.
- 김정엽, 이재모(2008). 저소득 여성노인과 일반여성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9, pp.399-420.
- 김현정, 손정락(2007). 인지행동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적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pp.805-826.
- 김현아, 전명남(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pp.129-160.
- 김희경, 신현균(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pp.707-724.
- 김희경, 오수성(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pp.1-20.
- 남연희, 남지란(2011).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pp.145-162.
- 민소영(2009).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로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pp.36-68.
- 박경(2003).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 심리학회지: 건강, 8(3), pp.581-593.
- 박상규, 이병하(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pp.813-824.
- 박상필(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pp.121-138.
- 박선희, 박병현(2012).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9(2), pp.85-123.
- 박영호, 김수암, 이금순, 홍우택(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박윤숙, 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 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156, pp.571-579.
- 박정란(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 pp.97-135.
- 서문기(2011). 국제지역의 발전연구에 관한 이론적 소고: 사회적 자본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4), pp.185-208.
-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외(199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황문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30(4), pp.752-767.
- 신희석(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1), pp.29-45.
- 엄태완(2010).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외상. 경남. 경남대학교출판부.
- 오혜경(2010). 여성장애인의 자본실태에 관한 논의 - 경제·직업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5, pp.53-82.
- 유석춘, 장미혜(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윤인진(2003). 탈북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거리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와 비교.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정희, 배성우(200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pp.1-28.
- 이미정, 안창일(1997).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pp.85-100.

- 이현기(2010).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0, pp.263-290.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29(2), pp.631-638.
-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pp.45-69.
-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2006).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조남익(2008).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박사학위논문, 청소년학과, 경기대학교, 경기.
- 조영아, 김연희(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 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pp.509-527.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지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 예측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2), pp.467-484.
- 최빛내, 김희경(2010). 탈북여성의 강제 복송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차이. 2010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임상심리학회, pp.299-300.
- 최윤정(2010).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장애인의 회복 전략.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 부산.
- 한인영(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pp.78-94.
- 한겨레 신문. 2011년 11월 20일.
-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CmsWeb/intro/intro.html>.
- Allen, J. C.(2001).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within an Interactional Field.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pp.119-120.
- Baider, L., Ever-Hadani, P., DeNour, A. K.(1996). Crossing New Bridges: The Process of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Russian Immigrants

- in Israel.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59, pp.175-183.
- BellSouth, J. W.(2002). An Empirical Test of Crisis, Social Selection, and Role Explan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Disrup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of Four-Wave Panel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pp.211-224.
- Boateng, A.(2009). A Mixed Methods Analysis of Social Capital of Liberian Refugee Women in Ghana.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6(3), pp.59-81.
- Bourdieu, P.(1983).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Press.
- Chung, R. C.-Y.(2001). Psychosocial Adjustment of Cambodian Refugee Women: Implication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3(2), pp.115-126.
- Chung, R. C.-Y., Bemak, F.(2002).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e: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pp.111-119.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 Furnham, A., Bochner, S.(1989). *Culture Shock, Psychological Reaction to Unfamiliar Environment*. Cambridge: Great Britain at the University Press.
- Heilemann, M. V., Coffey-Love, M., Frutos, L.(2004). Perceived reasons for depression among low income women of Mexican descen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8(5), pp.185-192.
- Julia, J., Ernstmann, N., Nietzsche, A., Driller, E., Kowalski, C., Lehner, B., et al.(2012).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54(1), pp.23-30.

- Lebret, S., Perret-Vaille, E., Mulliez, A., Gerbaud, L., Jalenques, I.(2006). Elderly suicide attempters: characteristics and outcom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 pp.1052-1059.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rowsky, J., Ross, C. E.(2001). Age and th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pp.132-150.
- Putnam, R.(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 O'Brien, D. J., Hassinger, E. W., Dershem, L.(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Depression Among Residents in Two Rural Midwestern Communities. *Rural Sociology*, 59(2), 255-265.
- Robinson, N. S., Garber, J., Hilsman, R.(1995). Cognitions and stres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n depressive versus externalizing symptoms during the junior high transi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pp.453-463.
- Rumbaut, R. G.(1990). The agony of exile: A study of the migration and adaptation of Indochinese refugee adults and children, In Ahearn, F. L., Garrison, J.(Eds), *Refugee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 Segal, S. P., Aviram, U.(1978) *The Mentally Ill In Community-Based Sheltered Care: A study of community care and social integration*. NY: John Wiley and Sons.
- Wong, Y. L. I., Solomon, P. L.(2002). Community integration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 supportive independent housing: A conceptual mode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1), pp.13-28.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Um, Taewan

(Ky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Keywords: Female Saeteomins, Depression,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